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론



“어둠에서 빛으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무더워서 그런지 하루하루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과는 다른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2016년 대한민국의 아침은 한숨과 답답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펼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온 교우분들께 기쁘고 활기찬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주일 강론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개인적으로 느끼는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잊고 지냈지만 지난 2016년은 셰익스피어 사망 400주년이 되는 해로 세계적으로 그의 문학을 재조명하고 기념하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성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쓰여 진지 5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 두 종류의 책을 통하여 암울한 우리 현실의 이유와 과정 그리고 그 끝을 짐작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이야기한 오늘 독서와 복음에 관련된 내용을 “리어왕”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늙은 왕 리어는 세 명의 딸들에게 왕국을 나누어주고 여생을 가장 사랑하는 막내딸과 지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효성을 시험하여 봅니다. 탐욕스럽고 지극히 이기적인 큰 딸 ‘고너릴’은 “아버님에 대한 제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버님을 온 우주와 값비싼 보석보다 아름다움을 지닌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저는 일찍이 자식이 부

모에게 바친 적이 없는 지극한 효심으로 아버님을 모실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딸 ‘리건’은 “저도 언니와 같은 마음입니다. 다만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도 아버지를 향한 효심보다 즐거울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대한 효심에서 세상의 기쁨과 행복을 찾습니다.”라고 말하여 유산을 받지만 가장 기대를 걸었던 ‘코넬리어’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딸로서 의무를 다할 뿐입니다. 결혼하면 남편도 사랑해야하므로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여 리어왕에게 유산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으며 쫓겨나게 된다. 이후로 리어왕과 그의 자녀들은 폐륜을 저지르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올바른 판단력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가를 보게 됩니다. 아울러 토머스 모어는 자신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사회적 지배계층의 자본주의를 지향할 때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범죄와 기아로 죽음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범죄와 차별이 없는 사회는 공공의 이익(res publica, 공화주의)을 위한 기본정신과 평등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유토피아’임을 주장합니다.

한 가지 더 솔로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카리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자기 교만과 우월주의에 빠져 1,000명의 부인과 후궁을 두었으며, 어마어마한 그의 소득(년봉 금 666달란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탐욕과 차별에 의한 사치와 향락의 삶으로 결국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과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저는 두 작가의 작품과 성경에서의 솔로몬에 대한 증언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에 대한 슬픔과 울분의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었으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희망을 지니고 2017년 하반기를 살아갑시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반성할 줄 아는 우리들이었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우리들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능력과 재산을 다 투자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어둠이라는 터널을 이제 막 벗어나고 있습니다. 서로가 평등을 지향하며 권리와 의무를 실천하고 누리는 시간이 도래하였습니다. 교만과 탐욕이라는 우리안의 악한 본성을 극복합시다.

오늘의 주일 미사는 이러한 희망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얼굴은 주름지고 노동으로 검게 그을린 교우 분들이 보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들과 본당을 방문한 이들에게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마음에서 겸손함과 하느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감사”

사별퇴강 본당 박재식 토마스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7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하늘 나라를 얻기 위해 선택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명히 해야함을 일깨워줍니다. 현대는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하는 수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하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의지력과 분별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지혜의 은총을 더해 주시도록 청하며 이 전례에 임합니다.

입당성가 :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본기도

†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 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열왕기 상권 3장 5절-6절, 7절-12절

안 내 : 솔로몬왕은 하느님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청했고 하느님께서는 그의 청을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묵 상 :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선을 택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의 힘이 우리 안에서 선을 분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화답송 :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제2독서 : 로마서 8장 28절-30절

안 내 :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통해 선을 이루십니다.

묵 상 : 우리가 하느님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상으로 살아갈 때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13장 44절-52절

강 론 : “어둠에서 빛으로, 차별에서 평등으로”(1-2쪽)

예물준비성가 : 219번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영성체성가 : 151번 ‘주여 임하소서’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안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약했던 의지도, 무분별한 욕망도 분별의 능력을 연습니다.
솔로몬왕이 하느님께 지혜와 분별의 능력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청합니다.

<침묵>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를 보물과 진주에 비유하십니다.
또한 보물과 진주를 얻기 위해
기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용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삶의 의미를 둘 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부족한 의지와 분별력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원의를 성령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9번 ‘주를 따르리’

※ 공소사목 성금

김중기님	200,000원	박기섭님	10,000원
------	----------	------	---------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4,42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림

■ 초등부 성소자 캠프

- 일시 : 8월 8일(화) 14:00 - 9일(수) 14:00
- 장소 : 한성연수원
- 대상 : 성소에 관심있는 남자 초등부(3-6학년)
- 준비물 : 미사준비, 세면도구, 편한 복장, 운동화, 샌들, 갈아입을 옷 등
- 참가비 : 1인 30,000원
- 신청 : 7월 31일(월)까지 사목국으로

■ 제3차 가나혼인강좌(혼인 전 교리교육)

- 일시 : 8월 19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1인 1만원(2인 2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신청 : 8월 17일(목)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여성 제39차 꾸르실료

- 일시 : 8월 10일(목) 16:00 - 13일(주일) 15: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인당 120,000원
- 신청자격 : 영세 후 3년이 경과하였거나 견진성사를 받은 분

■ 1일영성피정

- 일시 : 8월 12일(토) 10:00 - 17:00
- 장소 : 점촌동성당
- 강사 : 문봉한 야고보 신부(대구교구)
- 회비 : 6천원(중식비 포함)
- 문의 : 성령쇄신봉사회 010-8447-0111

■ 치유세미나

- 일시 : 8월 18일(금) 15:00 - 20일(주일) 16:00
- 장소 : 농은수련원
- 강사 : 이보경 데레사 외
- 회비 : 10만원
- 신청 : 8월 10일까지 성령쇄신봉사회 010-8447-0111

■ 안동교구 갈전성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판매사업

- 건강 썬미숫가루(600g, 1만원, 1kg 1만6천원) 낙동강 청정지역에서 직접 채취한 썬
담당자 : 정 카타리나 010-8573-5979
- 영양 토마스 고춧가루(주문판매)
전국 제일 고추생산지 영양 고추 100% 엄선 가공
담당자 : 오 수산나 010-3813-4405

■ 룯과 함께하는 침묵피정

- 일시 : 8월 11일(금) - 13일(주일)
- 장소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부산 본원
- 대상 : 40세 미만 미혼여성
- 문의 : 010-9319-1690 루카수녀

■ 소울스데이 여름 가족 캠프

- 일시 : 8월 11일(금) - 13일(주일)
- 장소 : 평화계곡 피정의집(소울스데이)
- 회비 : 1인당 9만원
- 문의 : 010-5332-7587

■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

- 3박4일 피정: 8.24(목)-27(일), 9.14(목)-17(일)
- 8박9일 피정: 8.9(수)-17(목), 9.19(화)-27(수)
- 청년 피정(35세 미만): 7.29(토)-8.1(화)
-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 신청: 010-4906-5722, 031)953-6932

■ 제1회 가톨릭 장애인 생활 수기 공모전 (신앙과 장애, 그리고 “나”의 이야기)

- 주제 : 한국가톨릭장애인사목협의회 활동과 관련한 희망이야기, 신앙생활 가운데 장애와 함께하는 체험이야기, 장애와 함께하는 가족 또는 이웃과의 아름답고 소중한 사랑 이야기
- 자격 : 가톨릭 신앙의 장애인(개인, 단체) 및 가족, 장애인 복지 관련 활동가(자원봉사자, 종사자 등)
- 분야 : 수필, 시, 그림일기 등
- 응모방법 : 한가장 카페 (<http://cafe.daum.net/hancajang/>) 에서 양식 다운, 작성 후 이메일 신청 hangajang1@hanmail.net
- 응모기간 : 10월 21일(토) 18:00까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 (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 4장 혼인의 사랑

사랑의 변모

163. 수명의 연장으로 과거 시대와는 다른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친밀하며 배타적인 관계가 40년, 50년, 심지어 60년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결심을 늘 되풀이하여 새롭게 선택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배우자에게 더 이상 강렬한 성적 욕망으로 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여전히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자기의 삶과 역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하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기뻐합니다. 그 동반자는 삶의 여정을 함께 하고, 삶의 어려움을 함께 직면하며 아름다운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는 만족을 이끌어 내며, 이 만족은 부부 사랑의 고유한 애정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한결같은 감정을 지니게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분명히 함께하는 일을 하고, 서로 사랑하며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고 늘 깊은 친밀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맹세하는 사랑은 모든 감정, 감성, 마음의 상태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평생 지속되는 마음의 결단이 따르는 좀 더 심오한 의지입니다. 해소되지 않은 갈등과 혼란스러운 감정의 상황에서조차,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속하며 삶을 함께 나누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날마다 확인합니다. 배우자는 저마다 성장과 개인적 변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에서 사랑은 모든 단계와 모든 새로운 과정을 기뻐합니다.

164. 혼인의 역사에서 육체적 모습은 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매력이 사라지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육체만이 아니라 고유한 개성을 포함한 그 사람 전체를 사랑합니다. 세월에 따른 노화와 무관하게 육체가, 처음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은 그 개성을 어느 모로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다른 이들이 그 개성의 아름다움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배우자는 사랑의 본능으로 그 아름다움을 늘 알아볼 수 있고,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속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고, 상대방을 선택한 것을 재확인하며, 넘치는 사랑으로 진심으로 상대방을 가까이하여 이러한 선택을 표현합니다. 상대방을 위한 결심의 고귀함은, 이러한 선택의 강렬함과 깊이를 바탕으로 혼인 사명의 수행에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인격체인 다른 인간 존재가 불러일으킨 감정은 …… 그 자체만으로는 부부 활동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감

정은 다양하게 인지할 수 있는 표현 형태를 띠게 됩니다. 사실 사랑은 “서로 다른 차원을 가진 하나의 실재입니다. 때로는 이 차원이, 또 때로는 다른 차원이 더 명확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유대는 새로운 양식을 찾아내고 이 유대를 새롭게 다지려는 결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는 혼인 유대를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날마다 함께 노력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 청원하지 않으면, 날마다 은총을 탄원하지 않으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힘을 찾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을 강화하고 이끌어 가며 모든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도록 성령께서 당신의 불꽃을 우리 사랑 위에 내려 주시기를 바라며 그러한 힘을 청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5장 사랑의 결실

165. 사랑은 언제나 생명을 낳습니다. 부부 사랑은 “부부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을 주면서도 자신들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부애의 살아 있는 표상이고 부부 일치에 영원한 징표이며,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존재의 생생하고 불가분한 종합입니다.”

새 생명의 환대

166. 가정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하느님의 선물로 환대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무상으로 주어진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이는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것은 먼저 사랑을 받는 것의 아름다움입니다. 아이들은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랑받습니다.” 이는 언제나 먼저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수위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하기 이전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삶의 첫 순간부터 거부당하고 버려지며 그들의 어린 시절과 미래를 박탈당합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오도록 한 것이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 어른들의 실수 때문에 아이들이 벌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권과 어린이들의 권리에 대하여 엄숙한 선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원치 않는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면, 부모와 다른 가족들은 그 아이를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린 자세와 사랑으로 그 아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에 관해서 그 아이가 자신이 태어난 것이 실수이거나 자신의 존재가 가치 없거나 삶의 상처와 인간의 오만으로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른들이 치러야 하는 그 어떠한 희생도 너무 크거나 과하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새 아이라는 선물은 수용으로 시작되고 계속해서 평생 보호를 받으며 최종 목적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인간의 궁극적 완성을 명료하게 인식하면, 부모는 자신에게 맡겨진 소중한 선물을 훨씬 더 확고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부모에게 아이의 이름을 선택하도록 하시어 각각의 아이를 그 이름으로 영원히 부르실 것입니다.

- 다음에 계속 -



제주도 성지순례(1)

조태영 세례자요한
(안동가톨릭문인회)

2017년 6월 23일-25일 2박 3일 동안 안동교구 제7기 신앙대학 성지순례로 집사람과 함께 제주도 성지를 순례하였다. 여행비용이 만만치 않아 망설였는데 딸아이들이 경비를 부담하여 성지순례 겸 나의 칠순 기념 여행으로 15여년 만에 우리 부부가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다. 제주도에는 몇 번 가본 적이 있지만 성지순례는 처음이다. 제주도 천주교 성지순례는 이시돌 피정의 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분도여행사를 이용하였다. 23일 새벽에 사목국장 신부님과 크리스티나 수녀님의 인솔 하에 22명이 관광버스로 출발했다. 대구공항에서 오전 9시 반 비행기로 출발하여 10시 반에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윤병철 사도요한(관광버스 기사)과 가톨릭신문 제주 지사장 이창준 시몬(해설사)이 공항에 마중을 나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제주도에는 천주교 성지가 4곳이 있다. 정난주 마리아의 묘소가 있는 대정성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표착지인 용수성지, 1901년 신축교안(이재수의 난)이 일어났던 관덕정성지, 신축교안 때 죽은 사람들의 묘지가 있는 황사평성지이다. 이시돌 묘장은 성지라기보다는 성지에 못지않은 현재진행형인 순례지이다.

우리는 점심으로 전복뚝배기를 맛있게 먹은 후 첫 순례지로 대정성지를 순례했다. 대정성지에는 신유박해 때 황사영백서로 유명한 황사영 알렉시오의 부인인 정난주 마리아의 묘가 있는 곳이다. 1801년 엄동설한에 마리아는 관비의 신분으로 2살된 아들 황경한을 데리고 제주도로 귀양을 오던 중에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여 인솔 관원에게 뇌물을 주고 추자도 갈 대밭에 아들을 내려놓고 혼자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황경한은 오씨 성을 가진 어부에게 발견되어 오 씨의 양자로 자랐고 그 후손들이 아직도 추자도에 살고 있으며 추자도에서는 그로 인해 오씨와 황씨가 혼인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마리아는 제주목 대정현에 관비로 있다가 김석구 집에 위리안치 되었다. 비록 노비의 신분이었지만 사대부 집안의 규수로서의 지닌 학식과 교양, 천주교 신자로서 지닌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화시켰다. 특히 김석구의 아들을 양자처럼 정성을 다해 키웠으므로 김씨 집안에서는 <한양할머니>라고 호칭을 할 정도로 노비 이상으로 예우를 해주었다. 김석구의 후손들이 5대에 걸쳐 한양할머니 묘를 별초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마리아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알 수 있다. 제주교구는 그 덕분에 마리아의 묘를 찾을 수 있었고,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이곳을 대정성지로 성역화 했으며 정난주 마리아를 백색 순교자라고도 했다. 대정성지는 마리아가 선종한 2년 뒤인 1840년에 추사 김정희가 유배 와서 1844년에 그 유명한 세한도를 그린 곳이기도 하다.

대정성지 순례를 마치고 김대건 순례 길을 걸었다. 제주도에서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선 지 각 종교단체에 순례 길을 만들도록 지원해 주었다. 우리 천주교의 순례 길은 6곳이 있으며 일부는 공식적인 도로명이 되었고 일부는 제주도의 올레 길과 함께 유명해졌다. 1. 김대건 길(빛의 길) 2. 정난주 길(빛의 길) 3. 김기량 길(영광의 길) 4. 신축화해의 길(고통의 길) 5. 하논성당 길(환희의 길) 6. 이시돌 길(은총의 길)이 있다. 제주도에 높은 언덕이 없고 대체로 평탄하므로 나 같은 다리장애인이 걷기에는 더할 수 없이 좋았다. 김대건 길은 제주도 서남쪽의 용수리 해안을 따라서 있었으므로 시원한 바다 바람을 쏘이며 유네스코에 등재 될 정도로 특이한 제주도지질의 지층(地層)도 볼 수가 있어서 더욱더 좋았다. 김대건 신부님이 13명의 일행과 함께 풍랑으로 용수리 해안에 표착했던 기념관이 있는 용수 성지에서 미사를 올리고 맛있는 제주갈치조림으로 저녁을 먹은 후 호텔에서 첫날의 여독을 풀었다.